

암,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있다!

오늘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들을 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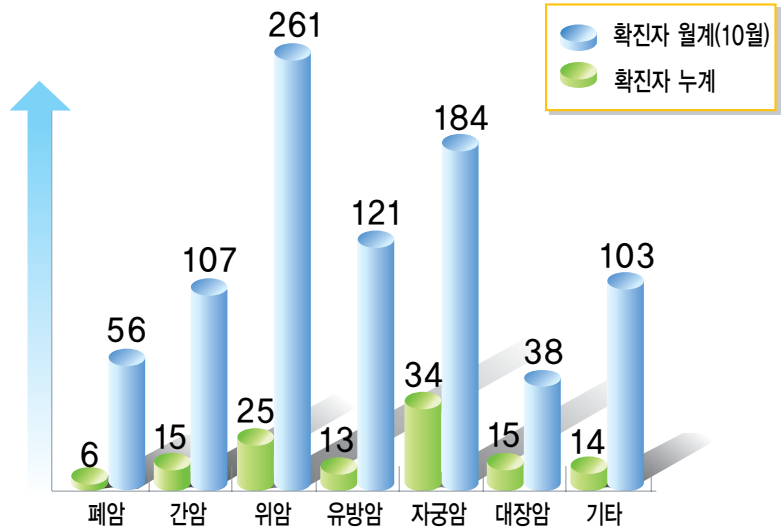
자궁암 조기발견 사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는 김○○ (여, 52)씨는 중앙검진센터에서 자궁암 의심소견을 받고, 강동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신○○ (여, 37)씨는 충북지부에서 자궁암 의심소견을 받고,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자궁경부암

한국건강관리협회 2006년 주요 암 발견현황

10월	암의심 소견자 : 436명
	확진자 : 122명
	암의심 소견자 누계 : 4,660명
	확진자 누계 : 870명



우리나라 여자에게서 가장 많은 암이 바로 '자궁경부암'이다. 자궁에 생기는 암은 그 발생 부위에 따라 자궁경부에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에서 발생하는 자궁내막암으로 구분되며, 발생 비율은 자궁경부암이 95% 정도이고 자궁내막암이 5% 정도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궁암이라 하면 자궁경부암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궁경부암은 진행도에 따라 초기단계인 비침윤성 경부암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침윤성 경부암으로 나눌 수 있다. 비침윤성 경부암은 암세포가 아직 상피조직 안에 있어 다른 곳으로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형증과 상피내암으로 나뉘며, 침윤성 경부암은 제1기, 제2기, 제3기 및 제4기로 나누어진다.

● 자궁경부암의 발생 원인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과정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자궁경부의 상피세포는 외부의 자극(성생활 등)을 많이 받는 부위이다. 따라서 사춘기까지는 기둥모양의 상피세포로 덮여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밖의 피부상피와 같이 여러 겹의 평편상피세포로 바뀌게 되는데 완전히 바뀌기 전(20세 전후)에 성접촉이나 외부자극이 있는 경우 암발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 자궁경부암의 증상

대부분의 암이 다 그렇지만 자궁경부암도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에게 느껴지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일단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각증상에 의한 조기 발견은 어려운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자궁내 출혈을 들 수 있는데 성관계 시 혹은 부정출혈로 나타나며, 특히 폐경기 후에 이상출혈 증상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자궁경부암의 증상으로는 냄새가 많이 나는 대하, 동통 등을 들 수 있다. 자궁경부암이 진행되면 부정출혈의 빈도가 잦게 되고 양도 증가하게 되면서 악취가 점점 심하게 되며, 침윤성 경부암의 말기에 가서는 복통이나 하지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암조직이 요관, 골반벽 또는 좌골신경을 침범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방광이나 직장을 침범한 때에는 소변보기가 어려워지며 혈뇨 또는 혈변을 보게 된다.

● 자궁경부암의 진단

세포진검사(부인과적 세포학적검사), 자궁경부 확대촬영검사, 질확대경검사, 조직검사 등이 자궁경부암의 진단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진단방법 중 특히, 세포

진검사는 자궁경부암의 조기진단에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꼭 필요한 방법이다. 대하가 많다든가 출혈이 있는 부인이나 아무 증상이 없는 부인들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아야 하는 대상을 선별하는데 적합한 진단법이며, 대체로 자궁경부암 진단에서는 75~80%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의 암발생 부위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가 자궁경관 분비물이나 질분비물에 섞여 있는 것을 현미경검사를 통해 발견하는 방법이다.

● 자궁경부암의 치료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치료방법도 간단하고 거의 완치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라면 그만큼 치료과정도 복잡하고 완치율도 급격히 떨어진다. 최근에는 이처럼 진행된 경우라도 치료방법과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어 과거에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병기가 너무 지났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 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발되는 암도 조기치료할 경우 상당한 환자에서 완쾌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궁경부암의 예방

자궁경부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세포진검사와 같은 검진을 통하여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다. 특히, 20세 이전에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더욱 관심을 갖고 정기검진을 받도록 해야 된다. 또한, 자궁경부암은 출산이 끝난 30대 후반부터 50세까지의 연령층에서 비교적 발생률이 높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기까지 수 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30세 이상의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